

통합시, 무한 가능성의 시작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의 정서나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발표에서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시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통합시가 되면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에 대한 특례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와 광주·하남시의 무한 잠재력(넓은 토지)이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특히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망 건설, 첨단정보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집적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대형 물류단지 조성 등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광주·하남시의 넓은 토지는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및 분당구의 리모델링 추진 가속화)

또한 신도시의 대표 브랜드인 분당, 관교와 전통의 남한산성, 그리고 한강을 잇는 관광벨트 개발 등 광역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열에 대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자율형 사립고, 지속형 고교 등의 유치를 통해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교육도시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 성남시 총예산액은 2조5,163억 원이며, 이 중 분당구의 지방세(도세 포함) 수입은 5,2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25%에 불과하며,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의 세입은 거의 분당에서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이 되면 오히려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확보와 순환용 주택개발을 통한 순환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해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과 분당구 아파트들이



리모델링할 때 부족한 임대아파트 확보로 수정·중원·분당구 모두가 'win-win'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정인재정력, 문화기반시설, 도시브랜드 가치 등이 '현재의 가치'라면 광주·하남시가 가진 넓은 면적과 개발 잠재력, 수려한 한강의 수변환경 등은 '미래의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현재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미래의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과거의 통합사례에서 보면 통합 전 재정이 우세한 지역으로 재정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편차를 더욱 심화시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이 되더라도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하남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 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4개의 자치단체를 통합한 제주시의 경우 통합 전 가장 큰 도시인 제주시로 인구와 재정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만 5,859개의 시·정·촌을 통합하여 3,472개로 줄였으나 이 역시 규모가 큰 도시로 재정이 집중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원의 수가 광주·하남보다는 성남지역이 많으므로 성남의 예산이 광주·하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 상정된 6개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은 '행정기능의 중점으로 인한 남비와 비효율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100만

이상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 및 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0학년도 학생배정 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성남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학군의 제1구역이 수정구·중원구, 제2구역이 분당구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더라도 교육부의 학생배정계획에 의해 학군배정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광주의 학생들이 성남으로, 성남(분당)의 학생들이 광주로 배정 받는 원거리 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 오포면과 같이 성남(분당)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학생들이 분당으로 학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2011년 3월 오포중학교가 개교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학생은 성남시내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광주시나 하남시의 학군으로 통학하는 일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개발 잠재력(넓은 토지)이 풍부한 광주시와 깨끗한 수변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의 청정수역은 우리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아탑전자부품연구원, 게임허브센터 등의 IT, NT 등 첨단지식정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광주·하남에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및 업무단지, 생태기능을 활용한 공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개 시의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창출해 지역발전과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슬림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행정기구, 각종 시 산하단체와 위원회 등의 통폐합으로 인한 경비 절감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729-2283



성남시가 36년간의 태평동 시대를 마감하고 여수동 시대를 열었다. 시는 11월 18일 중원구 여수동 소재 신청사 중앙현관 앞에서 성남 시청사 및 의회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각계각층 인사 등 성남시민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 의식행사와 함께 모범시민상·문화상·경기도민상 수상자와 청사건립유공자에 대한 시상이었다.

729-2787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는 지난 10월 시민의날 행사 때 취소됐던 e푸른콘서트와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 이윤석·박선하의 사회로 진행된 e푸른콘서트에는 가수 인순이를 비롯해 주현미, 하춘화, 김경호, 림블피쉬, 뮤지컬 남한산성팀 등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시민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대지 7만4,452㎡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 신청사는 1~3층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예솔이와 애림이, 명희는 태평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어린이들이다. 오늘도 편안한 복장으로 활한 곳은 태평3동 주민센터.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꼬물꼬물세군대왕》이 재미있어요." "《년 문제야》가 더 재밌었어요."

한편에 마련된 세제로 손을 씻고 이층으로 올라가면 밝고 예쁘게 꾸며진 도서관이 마주한다. 안에 들어가면 작은 도서관 운영 담당자인 최은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한다. "통합된 회원증 하나면 우리시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책은 5,800여 권이 준비돼 있고, 필요 없거나 쌓아둔 책을 기증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길 부탁했다.

이엘리(가명·45) 씨는 이곳을 만남의 장소라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공공도서관은 멀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주 갈 수도 없지만, 이곳은 가까워서 좋아요. 바닥도 따뜻해서 앉거나 엎드려서 안방처럼 편히 책을 볼 수 있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난 뒤, 불일을 보고 이곳에서 아이와 다시 만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가까이 있어 편해요."

추워지는 날씨에 멀리 나가지 말고 집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로 마실을 가보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마음의 양식인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올해 1월에 개관한 수내1동 작은 도서관은 소장도서 3,826권, 하루 이용 인원 60명, 하루 대출이 70권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로비에 도서관이 꾸며져 있다. 차를 마시거나 창밖으로



Table with 10 columns and 5 rows showing library statistics for various districts.



Table with 10 columns and 15 rows showing library statistics for various districts.

펼쳐지는 계절을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립초등학교 4학년이 재학 중인 정지수 양은 "일주일에 두 번 탁구를 치러 오는데 그때마다 책을 두 권씩 읽어오.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라며 밝게 웃었다. 작은 도서관에는 주로 초등학생들과 엄마들이 많이 방문한다.

새로 지은 야탑1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지난4월에 개관했으며 소장도서 3,000여 권, 1일 이용 인원 51명, 1일 대출 39권이다. 우리의 전통생활방식인 좌식문화를 적용해 따뜻한 바닥에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코너를 마련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송은식(50) 동장이 수시로 도서관에 올라와서 실내용도를 직접 체크한다며,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주로 유아들과 엄마들이 같이 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관내 공립 작은 도서관은 구별 27곳씩 6개 동주민센터와 중원·정자·서현 최소년 수련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성남 시청사 2층에도 열린 도서관이 마련돼 있으니 이번 겨울, 작은 도서관과의 데이트는 어떨까.

pkh2234@hanmail.net
sunlin_p@hanmail.net

Table with 10 columns and 5 rows showing library statistics for various districts.

Table with 10 columns and 15 rows showing library statistics for various districts.

2009. 11. 27() - 2010. 1. 22() 3 5

2010 ()

729-5170-2 729-6170-2 729-7170-2

(1975. 7. 25)

(1975. 7. 25)

(~ 09:00- 18:00)

()

729-3364

729-5101 729-6101 729-7103



성남시가 '2009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 2008년 경기도 출산인구 정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또 한 번의 큰 성과다.

시는 그동안 '차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 성남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추진해왔다. 임신·출산, 양육, 노후,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서 행복한 출산 준비 교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부부사랑 확인하기 등 총 214개 사업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영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총괄기획팀, 임신·출산지원팀, 양육지원팀, 고령화대책팀과 실무부서 팀장들로 편성된 T/F팀을 구성하고, 214개 사업의 각 대응부서를 지정 운영해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에게도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중학교 무료급식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한다. 시는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확대 추진해 선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29-2833

PET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 생수처럼 마실 수 있는 물이 11월 16일부터 생산·공급된다. 수돗물을 브랜드화한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은 일반 공급용 350ml와 500ml, 비상급수용 1.8ℓ 등 3종으로 생산된다.

시는 전국 최고의 PET병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0여 개월간 총 5억5천여만 원을 투입, 수정구 북정정수장에 PET병 물 생산 자동화설비, 활성탄 및 혼합산화제 등의 설비를 갖춘 280㎡ 규모의 병입수 생산시설을 10월 30일 완공했다.

- 가정용 배전반의 퓨즈는 전기용량이 조금만 넘쳐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장식용 소형전구를 오래 켜두면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절전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사 제품 등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 난로를 켜 채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잠자리에 들 때는 가급적 난방기구를 끄고 잡니다.
- 사용 중에 기름을 넣어서는 안 되며 급유 시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야 합니다.

이번 PET병 수돗물은 일주일에 5천 병, 연간 20만 병을 생산해 각 구청 민원실 냉장 쇼케이스 등에 비치,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며, 단수 시 비상급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신청(성남시청정수과 729-4155)하면 최대 2천 병까지 무상지원하며, 공공기관 대규모 행사는 사전 협의 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성남시 수돗물 상표명으로 채택된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은 다음 달 중 상표출원 및 등록 예정이다.

729-4153



- 석유난로의 불을 켜 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난로의 스위치를 끄고 뚜껑을 열어 다음 가까운 곳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합니다.
- 취침 시에는 난방기구를 꺼야 합니다.
-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통 속이나 화학약품의 저장소 등에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 번개가 심한 날은 컴퓨터, TV 등을 켜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발생에 대비해 대피요령을 미리 익혀둡니다.
- 소화기 사용방법을 평소 익혀둡니다.

12 (12)

2 21

2

9 30 8

1 1 (6

) 725-9461-6

2010

12 7

26



내년 1월 19일~6월 18일(5개월) 운영될 제48기 정규반 수강생을 오는 12월 7일~내년 1월 18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문기술 교육 18개 과목, 사회문화 교육 8개 과목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수강료 면제자는 12월 7~8일 방문접수 ▲ 주민등록지가 성남시로 등재된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여성은 12월 9일~2010년 1월 18일 인터넷(<http://snfamily.or.kr>) 접수한다. 수강료는 5만 원이며 교재비·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카드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가능하다.

729-2951-6

()			
30	12.10	10:00-13:00	
30	12.10	14:00-17:00	
30	12.10	10:00-13:00	
30	12.10	10:00-13:00	
25	12.9	10:00-13:00	()
25	12.9	10:00-13:00	
25	12.9	10:00-13:00	()
25	12.9	10:00-13:00	()
20	12.9	14:00-17:00	
16	12.9	14:00-17:00	
20	12.9	10:00-13:00	
20	12.9	14:00-17:00	
30	12.10	09:30-11:00	
30	12.10	09:30-11:00	ΠQ
30	12.10	11:30-13:30	1 2 3
30	12.10	11:30-13:30	
20	12.10	10:00-13:00	24

()			
20	12.9	10:00-13:00	
20	12.9	14:00-17:00	
24	12.9	10:00-12:00	
24	12.9	10:00-12:00	
24	12.9	14:00-16:00	
25	12.9	10:00-12:00	
25	12.9	10:00-11:00	
25	12.9	10:00-12:00	

정치후원금!
바른 정치를 위한 깨끗한 후원금입니다.

정치후원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인터넷으로 결제: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숫자 5391(나·세바 + 통신사 번호로 접속) (02-1200-1100)
- 체크카드로 간편하게: 신용카드 포인트기부(snfamily.or.kr)
- 대한민국회 후원금창: www.assembly.go.kr 에서 후원

정치후원금 후원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센터 www.give.go.kr를 통해 후원금을 후원하시면 수월하며 후원한 내역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자금기부센터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Q A B 5

3,000

1 5

A

2

취업상담실 운영

(10:00- 15:00)

18

()

(, MBTI)

(:)

(729- 2954)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16일 의정실에서 시의회 법률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김성만, 이현용 변호사로 성남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변론건 등 활동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됐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앞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청원 등 법령사안의 검토,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임, 기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11월 9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단법인 한국 지역사회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성남시민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김대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교육운동은 가정에서는 건강함을, 학교에서는 즐거움을, 지역사회에서는 활기를 불어넣어 행복한 도시정원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성남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시민들의 리더십 함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인권포럼(대표 안미선)에서 개최한 경기도 지방의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1월 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초단체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이 병행 실시됐으며 성남시의회에서는 정기영 의원과 김현경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09



성남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성남시 여성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여성의원 김해숙, 한성심, 이순복, 김현경 의원과 20여 명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폭력피해자 보호와 예방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기로 했다.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박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도 성남시의회 의원연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의정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기 말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가장문화예술학교 등 지역문화탐방과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활용될 계획이다.



학교 내 영어마을 'e푸른성남 금상영어체험센터'가 지난 11월 2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이어 시에서 세 번째로 개관한 금상영어체험센터는 수정구·중원구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상초등학교(중원구금상1동)는 12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IT 월드관, 영어전용 도서관, 생활문화·가족문화·공공

문화·직업문화·역사문화관, 세계여행체험실, 멀티다목적 등 상황별 실용영어체험 학습공간을 마련했다. 원어민 강사 6명, 내국인 강사 4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100% 영어로만 대화한다. 공간별 테마에 맞는 체험을 즐기는 동시에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된다. 호주 현지와의 화상연결 수업을 받으며 "학교에 생긴 영어체험센터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좋아요"라며 즐거워하는 김민솔(금상초 5) 학생, "지금까지는 학원에서



성남영어마을에서 관내 청소년들이 겨울방학동안 영어권 세계의 문화와 생활체험 기회를 갖는 영어캠프가 열린다. 'SNET Olympics'를 주제로 1차 캠프는 2010년 1월 4-16일, 2차 캠프는 1월 18-30일 성남영어마을(문당구 울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에서 12박13일간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영어캠프는 2010년 2월 캐나다 동계올림픽에 맞춰 올림픽의 역사·전통·문화·지리·경기 등을 탐험하고, 주제에 맞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영어로 놀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자리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성남영어마을 홈페이지(www.snet.or.kr)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45만 원이며 저소득 학생은 무료다. 한편 주최측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 입소자 전원에게 백신접종, 체온체크, 손세정제 상시 사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

영어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곳을 이용할 거예요"라며 "좋은 환경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조은영(금상초 5) 학생 등 모두가 새로운 교육환경 체험에 들뜬 모습이다.

각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일체험, 국제화 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별 신청이 가능한 방과 후 학교, 주말 영어광장, 방학 중 캠프, 학부모 영어교실 등 8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방과 후 학교'(월 1만~1만 5천 원)와 '방학중 캠프'(미정)를 제외한 참가비는 무료다. 원어민 강사인 Frank Sayapeth(캐나다)는 "학생들이 실용회화 위주로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교육을 받으며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희망적인 장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e푸른성남 금상영어체험센터'에서 세계 속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프로그램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gsweet.sneec.or.kr>)를 참조하면 된다.

yoohn1107@hanmail.net

클릭, 청소년 뉴스 CLICK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서울종합예술학교는 지난 10월 23일 학술교류 협력관계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인프라에 대한 교류 ▲특강 교수진 상호 협조 ▲특기 장학생 추천 및 입학특전 부여 등이 추진된다.

740-5280

3 'Three Go (3) Festival' 중원청소년수련관은 11월 24일~12월 5일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축제를 연다. 성일여고·태원고·풍생고 등 6개 학교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는 ▲마술과 리더십, 건강한 이성교제 방범, 알뜰한 사회생활을 위한 경제교육 등 전문가 초청특강 ▲청소년 우수영화 상영 및 국내 유명 비보이 댄스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 ▲농구대회 및 단체줄넘기대회 등 스포츠 활동으로 꾸며진다.

750-4683

오는 11월 28일(토 13:00~16:00) 수련관 이용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제452호인 이 체험은 팽이 만들기, 매듭공예, 비석치기, 버나 체험, 달고나 체험 등의 내용으로 꾸며지며 선착순 사전 접수한다. 참가비는 1천 원.

781-6185

12월 12일(토 10:00~12:00)에는 초등4년~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심리검사의 날'이 진행된다.

781-6157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CYS-Net)'의 허브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중원청소년수련관 합동 5층)는 사례평가 후 해결에 필요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시간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놀이치료 놀이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 심리 및 정서를 이해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 미술치료 놀이와 미술 등 매개체를 통한 심리적 표현놀이 활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서·인지 발달을 유도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88(24시간 연중무휴) 심리적 문제 상담, 참여활동, 자원봉사 정보제공, 유해환경 신고

1388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실이 오는 12월 5일, 12일(토 10:00~12:00) 열린다. 대상은 6~7세 유아와 부모 15가족으로 압화로 크리스마스 리스 장식 만들기, 포인세티아 심기 등이 진행된다. 희망가족은 11월 27~30일 선착순 인터넷(<http://jw.snlib.net>) 접수하면 된다.

752-3916

산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노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다살림복지회



매주 수요일 재가노인복지센터 다살림복지회(분당구 수내3동)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빵을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빵이 남으면 장애인 시설에 전한다.

1999년에 설립된 이곳에서 2003년부터 근무한 김태희(50)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발전해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이기연(29) 과장은 이곳을 찾는 어르신과 많은 봉사자들을 늘상냥하게 대해며 편안하게 상담해주고 있다.

이곳에는 5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다. 오래도록 발마사지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린 요양보호사 윤명순(61) 씨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앞으로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성을 다하게 된다”며

모임을 같이하는 많은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효자촌 송중순(57) 씨와 정자동 김금옥(53) 씨는 “처음 하는 봉사라서 더 즐겁다”고 한다.

봉사자들은 작지만 스스로내는 후원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에게 계란을 전달해드리고, 매주 수요일엔 빵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위해 바빠질 것이라고 한다. 연말이면 송년잔치, 떡국떡 나눔 행사, 옷놀이, 속옷 전달하기, 생신상 차려 드리기 행사 등 많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713- 9001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나눌 때도 넉넉한 정자동사람들



새마을지도자와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자동 김영대(53) 씨는 풍산목재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농작물 키우기에 매달린다. 비어있는 공간지에 쓰레기를 치우고 밭을 일구어 해마다 농산물을 수확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온 그를 여러 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통장·부녀회·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정자동1동 봉사자가 20여 명 참여, 고구마를 캔 뒤 원두막에서 나누는 꿀맛 같은 점심식사는 땀 흘린 후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특히 며칠 전 부임해 온 최승자 정자동1동장은 일요일에도 가족과 함께 봉사에 참여해서 봉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

함께 고구마 캐기 봉사를 나온 어머니 자율방범대장 양정자(53) 씨는 “감자를 캔 후 또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가 모두 낫는다”며 조금씩만 힘을 보태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인 것 같다고 했다. 고구마 캐기에 이블레 참여하고 있는 김용식(50) 씨 내외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단합하는 모습도 보기 좋아 힘든 줄 모른다”고 했다.

올해는 감자를 1톤 정도 수확해서 정자동2동에 이웃 돕기로 전달했고, 고구마밭 옆에 심은 무와 총각무는 모두 김치를 담가 동 수혜자에게, 2톤 정도 수확한 고구마는 모두 이웃돕기로 전달했다.

1 729- 7682

새마을부녀회와 이주여성들이 함께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난 11월 10일 야탑동 새마을회관 4층에서는 성남시새마을회(회장 김상현)가 주최하고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이재)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다.

각동 부녀회장 4명과 협의회(회장) 임원, 이주여성 15명이 함께 담근 고추장 23톤은 각 동의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에게 모두 전달된다.

몽골에서 온 온드라(신흥1동) 씨는 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왔는데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남편이 아들을 돌보았다. 중국에서 시집은 전정희

(상대원2동) 씨는 “지난번 결연을 맺은 친정 엄마와 오랜만에 연락이 됐다”면서 친정 엄마와 함께 와서 부녀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추장 만들기에 열심이다.

많은 양의 고추장 재료를 보고 엄두도 못 내더니, 역시 부녀회장들의 주부경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다.

새마을부녀회는 앞으로 12월 2일 농협하나로유통센터 김장 봉사뿐 아니라 각 동의 이웃사랑 김장 담그기 행사, 연중 실시해온 현웃 모이기 행사를 12월까지 진행한다.

708- 6900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아직도 연탄 쓰는 곳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만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2004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지난 6년 동안 1,600만 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에 본부를, 성남을 비롯한 전국 40여 개 시·군에 지부를 두고 활동 중이다.

성남지부는 지난해 성남지역 123세대에 4만여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20여 개 봉사단체와 성남시민들이 참여해 저소득·홀몸노인·장애인 가정에 한 가구당 300여 장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 10월 15일 삼성테크원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성남시내 130여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한다. 11월 7일엔 지구촌교회의 130명이 수정구 창곡동에서

연탄나눔을 했는데, 이날 윤근영(72) 어르신은 쌓여진 연탄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전달한 이도 받은 이도 모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금까지 정자동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동서울대학, SK C&C,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관리연구원, 구미교회, 환경실천중앙연합 가족봉사단 등 학생부터 기업봉사단, 종교·시민단체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11월 25일 전자부품연구원, 12월 26일 성남시 기독교청년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연탄나눔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성남지부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연탄 기증자와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731- 5033

중원청소년수련관의 몰래산타 대작전

중원청소년수련관(관장 이종림)은 연말을 맞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홀몸노인 등의 가정과 기관을 방문해 이벤트와 선물 전달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작은 나눔 큰 행복’ 몰래산타 대작전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산타학교에서 교육받은 200명의 산타들이 300명의 청소년들에게 신나는 이벤트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시 거주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산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월 19일(토) 오리엔테이션(공동체활동·명예산타 위촉식), 12월 20일(일) 산타학교(산타 발상 연습·노래운동 등의 이벤트 연습, 카드 작성) 등 산타양성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산타학교 참가신청은 12월 12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한밤의 산타클로스’를 기대해볼 만하다.

750- 4680 www.jwyouth.or.kr

휴편나눔재단의 제1회 장학금 수여식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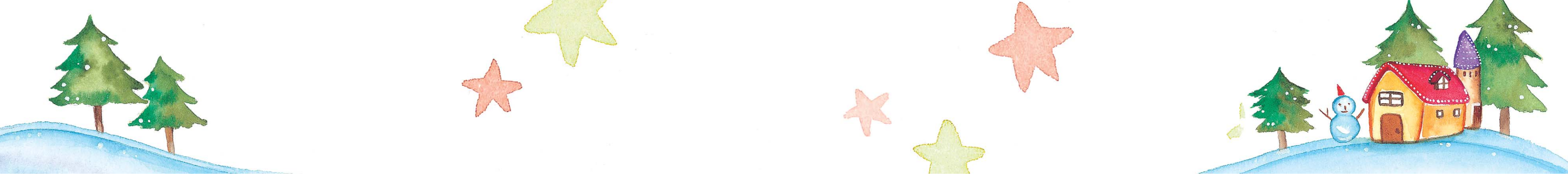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 휴편나눔재단(이사장 이재환)은 오는 12월 5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다. 성적우수·자립지원·특기자 등 세 분야의 장학생 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수여식은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다.

휴편나눔재단(분당구 정자동)은 교육문화기업인(주)위즈코리아 이재환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위즈사랑

나눔회라는 봉사모임을 조직해 봉사활동, 장학 후원 사업 등을 해오다가 지난 9월 재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재단은 지난 10월 회원들이 모은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상자’를 강원도 복지시설 생사람마을에 전달한 데 이어 12월 말에는 성남 에덴의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을 통해 10월부터 매월 1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사업도 진행한다. 이재환 대표는 <‘백만불자리 마인드’>,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1577- 5009 http://dreamjh.com





무지개동산 예가원에서 2002년 창단했다.
예가원 김윤례 실장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민하다가 난타를 알게 됐어요. 53명의 원생 가운데 7명을 선발해 예가원 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에게 배워서 다시 이들에게 리듬을 익히고 박자를 쉼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어요”라며 초창기를 회상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니 조바심내지 말자 했고, 단순히 흥미와 재능을 이끌기 위해 시작했지만 단 1회 공연일지라도 온 열정과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매일 연습했어요. 특히 난타 연주는 개인 기량 못지않게 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해서 팀원들은 이를 위해 하루에 3~4시간씩 맹연습을 했답니다”라고 덧붙었다.

150

10분짜리 연주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 1년이 걸릴 만큼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한 이들이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창단 이후 지난 6년간 늘 새로운 내용의 연주로 다양한 국내 행사 공연은 물론 미국 시카고·LA, 일본 나고야 초청 순회공연 등 국내외에서 150여 회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객들의 호응과 박수가 좋다는 임관택 씨, 무대에서는 것이 신난다는 남덕현 씨, 난타를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민원기 씨, 무대에 서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윤병례 씨,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난타를 하고 싶다는

심장을 두드리는 시원(始原)의 소리가 울린다.

7명으로 구성된 무지개동산 예가원(분당구 아탑3동)의 장애인 난타그룹 ‘레인보우 두들소리’가 오는 11월 26일(목) ‘장애인 재활기금마련 후원의 밤’ 무대에서의 멋진 연주를 위해 연습에 한창이다.

‘레인보우 두들소리’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심진섭 씨, 책임감이 강한 변산재 씨, 언제나 웃는 얼굴인 정향숙 씨 등 7명의 ‘레인보우 두들소리’ 팀원들. 함께할 수 있고, 연주하는 자신이나 공연을 즐기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에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김 실장은 “다양한 무대에서의 공연을 통해 이들은 복지수혜자에서 복지제공자로의 자긍심이 증대됐고, 예술적 잠재능력이 발현돼 사회생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면서 “취미생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난타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향한 특별한 두드림 ‘레인보우 두들소리’의 무대 위 열정은 오는 11월 26일(목) 오후 7시 코리아다자 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있을 ‘장애인 재활기금마련 후원의 밤’에서 직접 느낄 수 있다. 김 실장은 “영혼의 발바닥에서 울리는 독특하고 순수한 두드림, 이들의 기적의 소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705-2366
chung0901@hanmail.net



낙생() 지역의 문화유산

서관교 지역은 옛 광주 낙생(樂生)인데 영락장생(榮樂長生)의 땅이다.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무덤과 구석기 문화유적이 발굴돼 오래전부터 인류가 거주한 역사가 확인됐다. 그리고 낙생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꼭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고려 말에 이곡(李勳)이 <청풍정기(淸風亭記)>에서 낙생역에 머물렀다고 한 기록을 비롯해 훗날 왜(倭)나 동남아시아 사신들이 서울로 가는 길에 낙생역에서 쉬어갔다고 한다. 이 지역에는 여러가지 문화유산이 있다.

이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 안타깝게도 사라져 버린 문화유산으로 낙생행궁(樂生行宮)이 있다. 조선 건국 이래 역대 임금이 성남지역에서 군사훈련 강무(講武)를 실시할 때나, 청계산과 문헌산 등지에서 사냥을 하고 머문 곳이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사열하고 임금은 탄전 주변이나 낙생역 앞 들밭, 낙생행궁에서 머물기도 했다. 세종임금은 온천에 갈 때에도 이곳을 지나다가 낙생에서 머물렀다.

낙생 지역에서는 저명한 역사 인물들의 묘소를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궁내동(산 17-1번지)에는 전주이씨 인물들의 묘소와 사당 ‘정희사(靖禧祠)’(사진 위)가 있다. 조선 중종의 왕자인 덕양군 이기(德陽君 李岐)는 이복형제인 인종·명종과 우애가 돈독했고, 종부시 도제조를 비롯한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시호는 정희(靖禧)다. 아들인 풍산군 이종린(豊山君 李宗麟) 묘역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6호로 지정됐다. 구천군 이수의 호종훈(扈從勳,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해 따르던 일 또는 그린 사람의 훈공)으로 현록대부(顯祿大夫)에 올랐다.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이 지은 충숙공 이수묘갈명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왕실에 경사가 연이어() / 현철이 태어났네() / 풍산군의 바른 행실() 가업의 기반 되었으니() / 공이 드디어 생겨나서() / 가문을 더 빛내려 했네()

충숙공 이수(李睟·1569-1645) 선생은 이종린의 아들이다. 인품이 준수하고 두각을 나타내어 큰 그릇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알았다.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찬 목소리로 형 구성군에게 “이 아우는 어버이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호가(烏鵲,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며 뒤따르던 일)를 못했는데, 형님이 집안일을 맡아 주시면 저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곧 몸을 빼어 달려갔다. 그리하여 왕명을 받들고 다시 분조(分朝)로 간 다음 곧바로 선전관이 됐는데, 그 역시 남다른 대우였다. 묘소는 경기도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됐다.

1615년 역적 이이첨이 광해군의 비위를 맞추어 늘어나면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모후(母后)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했을 때 공은 이를 통탄해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이이첨의 죄를 논했다가 순천(順天)으로 유배돼 4년 후에 풀려났다.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태연한 마음으로 시와 술을 벗 삼아 즐겼는데, 전후의 수재(守宰, 수령)들도 다 존경하며 예우했고, 그 고을 백성들까지도 모두 감탄했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임금을 공주로 모시고 갔다. 이때 사람들에게 “이괄의 관성이 흥해서 오래지 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곧 그 말대로 돼 사람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감복했다. 난이 평정된 후, 임금이 사석에서 그를 만나면 언제나 직접 술잔을 들어 권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종친 호칭을 썼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도 국왕을 강화로 모시니, 죽은 뒤 정1품 벼슬에만 주는 현록대부(顯祿大夫)에 올랐다.

그가 세상을 뜨니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애석해 했으며, 아래에 있는 벼슬어치들까지도 모두 한숨을 짓거나 눈물 흘리며 곡전(哭奠) 드라기에 바빴다. 공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호탕해 범도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자리면서 학문을 좋아해 월 새 일이 노력했고,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 즐거움을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남이 못할 일을 많이 했는데, 그의 본 바탕이 아름다운 탓이기도 하겠지만 역시 배움의 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다.



해마다 10월경에는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중 일부는 우리시로 날아온다. 우리시의 천가운대를 지나는 탄천과 7개 정도의 저수지에서 철새들이 겨울살이를 한다.

우리시에서 실시한 2005~2008년 탄천 조류 모니터링 총괄 결과표를 보면 탄천에서 볼 수 있는 새의 종류는 30여 종이 된다. 겨울에는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흰뺨검둥오리·쇠오리·청둥오리를 비롯해 고방오리, 비오리, 넓적부리, 백할미새, 논병아리, 흰목물떼새, 흰족지, 알락오리 등이 탄천에서 만날 수 있는 새다. 탄천에서 새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불정교·미금교 구간이고, 여러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는 곳은 대곡교~폐기물 선별장 구간이다.

탄천에 날아오는 새 중에는 특히 오리류가 많다. 오리는 수면성 오리와 잠수성 오리로 나눌 수 있는데 먹이를 찾는 모습과 물위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수면성 오리인 흰뺨검둥오리·쇠오리·청둥오리·고방오리 등은 머리와 목을 이용해 먹이를 찾고 제자리에서 바로 날아오른다. 잠수성 오리에는 비오리·흰족지 등이 있는데 잠수해 먹이를 찾고 물위를 달리면서 날아오른다. 탄천에는 수면성 오리가 많이 날아오는데 이는 탄천의 수심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올 겨울에는 탄천변을 걸으며 새를 눈여겨보자. 그리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긴 목을 빼고 공지깃을 거만하게 울린 채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있는 고방오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쇠오리의 여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름 철새지만 뒷새회된 백로와 왜가리의 먹이를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날न्न 부리의 움직임도 흥미로운 광경이다.

겨울 철새들은 이듬해 3월경이만 거의 떠나간다. 먼 곳에 가야만 철새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를 탐조(探鳥)하러 이번 겨울에는 탄천을 찾아보자.

ikpark9420@hanmail.net

UP!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디스코, 디스코, 돌리고, 돌리고~” 대원지구대 뒤편에 자리한 대원근린공원에서 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다.

오전 10시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에 임하고 있는 수상한 주부들을 만났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타죽풍물패 사방사방 각설이’(이하 사방사방 각설이·강사 윤희정) 동호회 회원들이다.

사방사방 각설이는 올해로 3번째 접어들었다고 한다. 20여 명의 회원 모두가 중년이 훌쩍 넘은 주부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풍물이다 보니 하게 됐어요.”, “풍물을 하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아요”라며 호탕하게 웃는 회원들 중 유일하게 청일점인임정치랑 씨는 일본에서 왔다 왔다. 그는 사물놀이와 징이 특기인데 근래에 각설이를 시작하게 됐다.

윤희정(사진 뒷줄 오른쪽 3번째) 강사는 10년 넘게 ‘소리’를 한 사람이다. 소리에 남다른 관심이 많았으나 성대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각설이 동호회를 만들게 됐고, 난타공연도 함께하고 있다. 윤강사는 현재 ‘국립극장모듬북’ 회원이기도 하다.

각설이를 배운 지 1년이 넘는 전필순, 배옥자 주부와

새내기 고정순 주부는 하나같이 말한다. “한바탕 뛰고 나면요, 운동도 되고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스트레스도 확 날아간다니까요.” 이제 두 달 됐다는 신입생 고정순 씨는 “다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잘 받고 있어요”라며 연신 몸을 움직인다.

사방사방 각설이는 중동과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주부들로 구성됐다. 신입생도 몇 사람 있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수년간 사물놀이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라고 한다. 보기엔 아무렇게나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주로 스텝 밟기로 이루어지는데, 다이아몬드·디스코·트위스트·탱고 등 댄스의 모든 동작이 필요하다고.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이기도 한 사방사방 각설이는 정월대보름굿·단오굿 등의 공연은 물론 복정동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습은 중동과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공연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는 맹연습에 들어간다고 한다. 각설이 공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이다.

729-6637
729-6737
1
eks323@hanmail.net

성남시에 소재한 등산로 개·보수와 고목·쓰레기 치우기 등의 소임을 받고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 그동안 체험했던 잔잔한 애환들이 하나둘 생각난다.

우리 희망근로 대원들의 첫 만남, 좌중을 아무리 둘러봐도 70세가 넘는 내가 최고령 자임을 직감했다. 내 탄에 건강하고 멋지게 늙어간다는 자부심은 어느새 초라해졌다. 순간 나는 다짐했다. 젊은 그들로부터 거추장스럽다거나 끼워 넣기 했다는 식의 애증(?) 어린 눈초리를 받는 것은 결코 거부해야겠다고. 힘에 겨운 작업과정이나 목적지까지 가는 급한 행군에도 난 언제나 1, 2등을 빼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우리 팀의 근로 분위기는 자연스런 선의의 경쟁관계가 돼 그 어느 팀보다도 성과가 좋았다. 거북하게 들렸던 '어르신'이나 '아저씨'의 호칭은 언제부턴가 '큰 형' '큰 오빠'로 불렸고, 더욱 출신 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즐거운 긴장의 연속이었다.

돌아켜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극히 일부의 비아냥거림은 우리의 심혼을 찢어 놓는 아픔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따랐다. 산 정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솔한 호의는 오레도록 내 가슴에 남을 것이다. 목마름을 적서준 시원한 음료수며 과일 등을 한사코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그저 울컥함으로만 보답했다. 때로는 아찔한 순간과 슬픈 일도 있었다. 청계산 정상에서 기절한 여성대원을 119 요원들이 숨 가쁘게 후송한 사건,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출근해야만 하는 젊은이의 현실 등등. 가녀린 녀석들을 그저 살포시 안아 줄 수밖에 없는 나의 빈곤한 위로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면면히 떠오르는 우리 동지들의 자화상들! 크고 작은 잡음들을 슬기로움으로 정리하는 미스터 황, 시대적 흐름을 분별해 정연한 논리로 쉽게 설명해준 똑똑이 정원 씨, 2% 부족한 듯한 생활관념으로 자지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한 광재, 대원들의 우정에 찬화에 술을 곁들여 옥이와 성대,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한 언락이, 노장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소외됨을 가로막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고마웠다.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 팀 관리자의 덕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리처드 달러 교수의 <<넛지(nudge)>>를 탐독했음직함 최길방 팀장과 조문현 씨의 부드럽고 은근한 지도력에 감탄한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같이 어울리고 싶은 간절함은 이 늙은이의 지나친 욕심일까! 이름 없는 당신과 내가 우리를 만든다는 조병화 님의 시 한편이 떠오른다.

나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나고 말하지말아라
네가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나고 말하지말아라
내가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하늘 갈대바람

엄마야 누나야 천년 살자 / 우리 집 앞밭에는 갈대의 숲
탄천은 아마 계절의 시계인가 보다.

구름에 달 가듯이
살면서 보면서
있어 버렸던 세월들
구름 속에
감추었다 지나가듯
다시 돌아와
너
살면서 보면서
그렇게
구름에 달 가듯이
바라보며
남은 세월들
지난날의 너와 나의
풍경을 기억하며
살면서 보면서
입 맞추며
파란하늘 바라보며
그렇게
웃으며
기뻐하며
구름에 달 가듯이
살면서 보면서
숨 쉬우리

(5), (. 200),
: < > 729- 2075- 6 : snnews@korea.kr

2009 12

Calendar for 2009 11월 and 2009 12월 with event listings for various dates, including theater performances and music events.

Table of community events and services, including '내용: 당뇨·고혈압·뇌졸중...' and '대상: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1291
성남시는 지역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비전성남명예기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명
•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거주자로 시정에 관심 있고 취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활동내용: 월 1회 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지역 내 인물·기관·미담사례 등 지역소식 취재 및 기사 작성, 기타관련 행사 등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기명기사 사본(있는 분에 한함)
• 접수방법: 2009.12.10(목)까지 이메일 접수 (snnews@korea.kr), 우편 접수(우 462-1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홍보담당관실(비전성남))
• 선발방법: 서류전형(합격자는 2009. 12월 중 개별통지)
• 급여는 없으며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취재기사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홍보담당관실(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로 문의 바람.

사자성이 한마디
十匙一飯
열 명이 한 숟가락보테면 한 사람이먹을 분량이 된다뜻으로 여러 명이 한방을 돕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의미다.

(비전성남)을 보면 성남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방송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홈페이지 http://snvision.cans21.net
• 연락처: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2009 12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likely a schedule or data table, with some cells containing dates and numbers.